

#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 필요한가?’ 주제 토론회

## 12월 29일 서울역 대회의실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정부는 식품에 비만을 유발하는 성분이 많으면 적색, 적으면 녹색으로 표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 자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적용하는 식품업체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호등 표시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가 2018년부터 의무화되면 어느 가공식품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식품업계는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표시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식품음료신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 필요한가?’란 주제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왕림하시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 필요한가?

- 김태민 변호사(스카이트허법률사무소)

◇일시=2015년 12월 29일(화) 14:00 ~ 17:00

- 최낙언 이사(주)시아스

◇장소=서울역 KTX 대회의실(4층)

- 김정년 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좌장=이철호 이사장(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고려대 명예교수)

◇행사 일정

13:30 ~ 14:00 등록

◇주제 발표=노봉수 교수(서울여대 식품공학과)

14:00 ~ 14:10 개회식

14:10 ~ 14:40 주제발표

◇패널 토론

14:40 ~ 14:50 커피 브레이크

- 오정완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14:50 ~ 16:30 패널 토론

- 정명섭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

16:30 폐회

-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